
온두라스: 민주화와 가족 권력 사이에서

레오나르도 아길라르 / 제니퍼 아빌라

변호사, 기자 / 다큐멘터리 작가, 디지털 잡지 *Contra Corriente* 편집장

원제와 출처: Leonardo Aguilar y Jennifer Ávila, "Honduras: entre la democratización y el poder familiar", *Nueva Sociedad*, No. 300, julio-agosto de 2022, pp.113-126.

핵심어: 민주주의, 쿠데타, 시오마라 카스트로, 마누엘 셀라야, 온두라스

호세 마누엘 ‘멜’ 셀라야(José Manuel ‘Mel’ Zelaya)는 12년 전에 온두라스 대통령 자리를 떠났지만, 대통령궁은 다시 한 번 그의 관할구역이 되었다. 그의 아내이자 현 대통령인 시오마라 카스트로가 그를 고문으로 지명한 이래로 멜에게 개인적 불만이나 요구사항을 털어놓거나 정부 일자리 구직을 위한 추천서에 서명을 받고자 매일 수십 명이 호세 세실리오 델 바예 궁(Palacio José Cecilio del Valle)의 문턱을 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금요일인 3월 18일 그녀의 의제는 한 남성의 방문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바로 니카라과에서 10여 년의 망명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전 대통령실장 엔리케 플로레스 란사가 그 주인공이다. 비록 대통령은

불참했지만 대통령궁에서는 늦은 밤까지 회의와 식사로 짜여진 일정으로 그를 환영하는 행사가 열렸다.

1월 27일 첫 번째 여성 대통령으로서 시오마라 카스트로의 취임사가 있기 전, 일종의 상징적인 행위로, 멜은 2009년 쿠데타로 쫓겨날 때 총구로 위협을 받으며 잠옷 차림으로 비행기에 오르던 당시 빼앗겼던 대통령 제복의 허리띠를 돌려받았다. 이제 그가 창립하고 이끌었던 자유재건당(LIBRE)은 그의 아내를 대통령직에 올려놨을 뿐만 아니라 의회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카스트로는 마약밀매 혐의로 미국에 인도된 전 대통령 후안 올란도 에르난데스로 형상화되는 지난 12년간의 ‘마약국가’와 국민당(PN)의 ‘전제주의’와는 차별화되는 온두라스의 미래를 약속하며 집권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최근 4개월간의 행보는 과거를 답습하는 모양새다. 멜이 행사하는 영향력 이외에도 셀라야 가문의 여러 구성원들이 정부 요직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스트로가 취임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승인된 사면조치는 멜 가문의 오래된 조력자들에게 비록 여전히 진행 중인 사법조사에도 불구하고 정계 복귀의 통로를 열어주었다.

이 가운데 한 명인 플로레스 란사는 쿠데타 발발 한 달 후인 2009년 7월 30일 공문서 위조, 권력남용, 사기죄로 국세청에 소환됐다. 여기에는 2010년 카르타헤나 협약을 통한 사면조치 덕분에 귀국이 허용되었던 전 대통령 셀라야, 당시 대통령실 주무장관이자 온두라스 통신회사 온두텔(Hondutel)의 관리책임자였던 하코보 라고스, 당시 재정부장관이었던 레베카 산토스도 연루되어 있었다. 하지만 라고스와 산토스에 대한 소환은 온두라스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란사는 또한 권력남용, 공금횡령, 온두라스 중앙은행 계좌에서 1천 만 렘피라(당시 가치로 미화 약 57만 5천 달러 상회)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2009년 6월 26일 손수레에 돈을 가득 싣고 은행을 나서는 남자의 모습이 대중의 뇌리에 각인되었다. 5년 후, 플로레스 란사는 대통령 의장단 명목으로 청구

했던 그 1천 만 램피라가 실제로는 ‘네 번째 투표함’(Cuarta Urna)의 사전추진비로 쓰였다고 실토했다. 내막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셀라야와 그 측근들은 6개월 후 치러질 예정이었던 선거에서 네 번째 투표함 설치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국민들에게 묻고자 했다. 궁극적으로 그들의 목표는 대통령 재선을 허용하는 헌법 개혁이었다. 하지만 행정소송 재판부는 네 번째 투표함을 통한 국민투표를 위헌 판결했고, 대중매체, 교회, 군 최고사령부는 국민투표를 악마화했으며, 결국 쿠데타로 막을 내렸다.

대표적인 인권단체이자 사면 절차에 법적으로 결정적 발언권을 행사하는 단체인 온두라스 실종 피억류자 가족협의회(Cofadeh) 대표 베르타 올리바는 플로레스 란사와 그의 변호사 밀톤 히메네스가 사면 법안의 법적 검토에 참여했다고 공식적으로 발언했으며, 이 법안은 결국 통과되었다. 사면 수혜자인 란사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올리바는 그는 인권 수호자라고 답했는데, 이는 이전 전직 관료의 변호사가 Cofadeh에 답변한 주장과 일치하며, 마찬가지로 이 단체가 문서에 상술한 바이기도 하다. 그는 TV 언론인 레나토 알바레스로부터 당한 협박과 관련해, “그는 농민단체들을 대표하고, 1980년대 위협에 시달렸던 기자들을 옹호했으며, 레나토에게는 단 한 폰도 청구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했다.

셀라야의 과거 최측근이 공식 직함을 맡고 있지는 않지만, 현 대통령의 고문이자 남편 그리고 전직 관료들의 상당수가 현 정부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과거 노동부장관이자 국영전력회사 관리책임자였던 릭시 몬카다는 현재 재정부장관으로 재직 중이며, 전 재정부 장관이었던 레베카 산토스는 현재 온두라스 중앙은행 총재이다. 또한, 전 국방부장관이었던 에드문도 오레야나는 현재 청렴부장관(Ministro de Transparencia)이다. 명단은 계속 이어지는데, 예를 들어 온두라스 중앙은행 전 총재였던 에드윈 아라케는 현재 온두라스 생산·주거은행(Banhprovi) 총재이고, 멜의 전 고문이었던 엔리케 레이나는 현재 외교부

장관이다.

정계 복귀와 더불어 셀라야 측은 미완성 과제를 완결하려 하는 듯하다. 선거 운동 마무리 발언에서 시오마라 카스트로는 자신의 책무는 남편의 숙원이었지만 쿠데타로 중단되었던 ‘시민권력’(Poder Ciudadano)의 재개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카스트로는 제헌의회 발족을 약속했다. 공식 석상에서 뿔은 쿠데타를 주도했던 군부, 재계, 그리고 정계가 ‘기대에 부푼’ 국가를 무너트리기 위해 ‘네 번째 투표함’을 핑계거리로 악용했다고 언급해왔다. “오늘 시민권력의 자유정부 지도자들 중 한 명이었고, 네 번째 투표함의 조직자로서, 온두라스의 전환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했던 인물이 복귀한다.”라고 그는 3월 19일 플로리스 란사를 지칭하며 언급했고, 이에 맞춰 란사는 과거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말끔히 면도하고 맞춤 정장을 입고 등장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턱수염을 기르고, 흰색 구아이어아베라를 입고 등장했다.

셀라야 가문과 군부

온두라스 최초 여성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갓 2주가 지났을 때 카스트로는 군장교단과의 모임에 가장 가까운 친인척 3명을 파견했다. 최초의 여성 군총사령관이기도 한 그녀는 하지만 군부 핵심 지도자들을 만나지는 못했다. 그 자리에 같은 성과 이름을 가진 세 명의 특사들이 도착했다. 특사단의 공식 대표는 국방부 장관인 호세 마누엘 셀라야(José Manuel Zelaya)였고, 이어 고문 자격으로 호세 마누엘 셀라야 카스트로(José Manuel Zelaya Castro), 마지막으로 이제는 대통령 고문으로 있는 호세 마누엘 ‘뿔’ 셀라야로 구성되었다.

세 명의 ‘호세 마누엘들’이 온두라스 신정부의 공식 행사에 모습을 비쳤다는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우연이었지만 점차 가족내 공동권력의 원칙이 되어갔다.

멜은 대통령 고문이고, 그의 장남 엑토르 마누엘은 그의 어머니자 대통령의 개인 비서이고, 둘째 딸 시오마라 오르텐시아는 국회의원이고, 막내 아들 호세 마누엘은 명예고문 자격을 주장한다. 멜 측 구성원으로는 그의 남동생 카를로스 셀라야는 국회 사무총장이고, 그의 아들 호세 마누엘 셀라야는 국방부를 지휘한다. 이는 족벌정치처럼 들리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들의 임명, 그리고 직위에 임명된 이들의 정치 참여는 온두라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비판에 직면할 때면 내세울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 또 다른 쿠데타를 피하기 위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권력 범위 내에 신뢰하는 사람들을 심어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셀라야가 쿠데타로 시달리던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에드문도 오레야나는 “신뢰할만한 사람을 무기가 있는 곳에 배치하는 건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 군대는 무기와 핵심 전략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곳에는 공화국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을 받는 자가 필요하다”라고 정당화했다. 전 대통령의 남동생인 카를로스 셀라야 역시 그의 아들이 차지한 새로운 직함에 대해 질문 받았을 때, “국방부가 쿠데타를 모의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할만한 사람을 그 자리에 배치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답변했다. 국방부장관은 33세 변호사로 공직 직위를 맡게 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자유재건당의 수많은 활동가들은 그가 정치적이라기 보다는 기술적 관료라고 인식한다. 셀라야의 고향인 카타카마스 시장인 마르코 라미로 로보는 그에 대해 “특히 소통 부문에서는 기술적”이라고 평가했다.

쿠데타의 기억은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이다. 오레야나의 전임자인 아리스티데스 메히아에게 있어 셀라야 정권 전복은 “멍청이들의 쿠데타였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국가가 완전히 붕괴되었지만, 사실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어 그는 “대통령에 의해 통제되던 기관이 단 하나도 없었다. 모든 기관들을 통제하고 있던 전 대통령과 달리, (셀라야는) 법원도 통제하지

못했고, 군대도 통제하지 못했고, 검찰도 통제하지 못했고, 선관위 심지어 정당도 통제하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뭘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한편 쿠데타를 주도했던 군부 지휘관인 로메오 바스케스 벨라스케스 장군은 이제는 퇴역군인이다. 그는 정치인이 되고자 했지만 실패로 끝났고, 당시 상황을 자신의 관점에서 서술해 책으로 출판했다. 그는 테구시갈과 외곽에 있는 자택 거실의 안락의자에 앉아, 멜이 그의 아들과 조카와 함께 군 최고사령관들과 모임을 갖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하며 피식 웃음을 터트린다. “어떤 이들은 부군(primer damo) 또는 퍼스트젠틀맨(primer caballero)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그가 대통령에 직위를 빼앗고 그녀를 단지 안전가드 정도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내게 있어 권력게임에서는 단 하나의 명쾌한 원칙이 있다. 절대 당신의 지도자나 상사가 가려지게 하지 말아야 하며, 당신보다 높은 지도자를 절대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쿠데타가 발생한 지 12년이 지났지만 셀라야 가문은 여전히 겁에 질려 있거나, 아니면 방패 뒤에 숨으려는 것 같다.

사면 또는 ‘면책 협약’

선거 운동 당시 시오마라 카스트로는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시민권력’의 전 관리가 그 수혜자가 되리라고는 내비치지 않았다. 법안 승인은 온두라스 안팎으로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국가반부패협회(CNA)와 온두라스 사기업협회(Cohep)는 이 법안을 ‘면책 협약’으로 분류했다.¹⁾ 공동 성명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1) “Pronunciamiento ‘Pacto de impunidad’”, 3/2/2022, disponible en <www.cna.hn/pronunciamiento-pacto-de-impunidad/>.

2006년부터 2009년 사이 재직 중이던 관리들 가운데 일부는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도 국가 쿠데타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할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어왔음을 부정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이 사실이 그들의 부패 혐의나 공공행정에 반하는 범죄사실 여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는 없다. 그들은 면책 대상으로 남아있어야 할 텐데,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2009년 같은 사건들이 향후 재발할 때 그 전례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며, 이런 방식으로 현재 부패라는 형태로 정부에 매년 초래되는 막대한 손실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올리바에게 있어 셀라야 정부시절 재직했던 관료들에 대한 사법 조사는 쿠데타 이후 ‘독재자’와 결탁했던 사법 권력의 연장선 하에 있으므로 하등 가치가 없다.

하지만 비판의 소리는 셀라야 가족들에서 터져 나오기도 했다. 현재 참령부장관인 에드문도 오레야나는 사면 법안을 비판했고, 심지어 이는 새로운 면책 협약이라며 비난했다. 그는 “법안은 시민사회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며, 누가 석방되고 누가 그렇지 않을지 최종 결정은 판사에게 달려있을 것이므로 자신에 대한 비난은 온당치 않다고 믿는다.

“법안은 Cofadeh가 만든 것이지 정부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중요한 사실은 정치적 범법자들은 정작 법안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기에 이견이 없다는 데에 모두 동의한다.”라고 오레야나는 이제 말한다.

사면은 셀라야 카스트로 가족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법안이 시행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대통령의 조카인 마르셀로 치미리 카스트로는 집행법원에 자신에 대한 부패사건 종결을 요청했다. 치미리 카스트로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국영기업 온두텔의 관리책임자로 재직했는데, 검찰에 따르면 조직 내 한 미

인증통신망(국제전화를 통한 사기) 운영에 그의 참여가 결정적이었고, 그 결과 국영기업 몫의 국제전화와 무선망 일부를 빼돌려 막심한 피해를 끼쳤다.²⁾ 또한 사건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온두텔의 재정 파탄을 야기했다.

쿠데타 발발 이틀 후인 2009년 6월 30일, 치미리는 권력남용과 사기죄 그리고 뇌물수수 및 그 대가로 미국 회사 라틴노드(Latin Node)에 특혜를 주기 위한 매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2013년 법원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청의 항소로 결국 그는 2018년 권력 남용과 사기죄로 8년형을 선고받았다. 그 후 4년의 복역 끝에 그는 사면조치로 올해 석방되었다.

온두라스에서 치미리 카스트로 사건파일은 17편에 걸쳐 약 7천 장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온두라스 검찰은 자체 조사 이외에도 플로리다 남부지부 조사를 통한 절차증거, 그리고 과테말라 검찰과 합동으로 수집한 조사 자료들을 확보했다. 사건파일에는 증거들로 가득한데, 여기에는 온두텔과의 계약에 합의하기 직전 온두라스에서 라틴노드가 치미리 카스트로 회사에 지불한 3만 달러에 대한 건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온두텔과 라틴노드의 659계약 관련 교신 이메일, 그리고 당시 내무부 장관의 아들이자 전 대통령 셀라야와 매우 가까웠던 인물인 카를로스 에두아르도 레이나 등 일부 정치인들의 연류 사실도 포함되어 있다. 레이나는 자유재건당의 대통령 예비 후보인 적도 있다. 라틴노드의 한 직원은 중앙아메리카 측 접촉 관계자와의 이메일 교신에서 치미리와의 대화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하려고, “카를로스 에두아르도가 우리를 위해 일한다고 그들에게 말하세요,”라고 적었다. 이메일 내용에 따르면, 또 다른 접촉 관계자는 카를로스 셀라야였는데, 바로 멜의 남동생이자 국회 사무총장으로 사면을 승인한 인물이다. 또한 방대한 파일에는 ‘시민권력’ 정부를 지지하기 위한 선거 운동을 위해 국제전

2) “Espionaje, tráfico gris, abusos, traición”, en *La Prensa*, 26/1/2008.

화카드 판매 계획도 담겨있는데, 이 역시 멜 셀라야 정부에 이득을 주려는 목적이었다.

2022년 3월 3일, 치미리는 광범위하고,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사면을 승인 받았다. 그의 석방을 뒷받침하기 위해 두 가지 근거가 제출됐다. 하나는 쿠데타 이후 작성된 진실위원회 보고서에 셀라야 측근 관료들이 정치적으로 탄압받았다고 언급한 대목을 발췌한 것이고, 다음은 축출된 전직 대통령과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그와 전 대통령이 동석한 모습이 찍힌 사진이다.

“사면은 특히 쿠데타 지원 세력에 의해 격렬한 공격을 당했다. 그들은 언제나 파시즘에 굴종해왔고, 애국자와 투사들을 학살하고 매도했다.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이들이 존엄한 곳에서 살기 위해, 다시 말해 자유롭고 민주적인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라고 대통령은 라디오와 TV 녹화 방송으로 전파된 취임 백일 기념사에서 말했다. 이후 연설문 전문은 신설 잡지이자 정부 선전 매체로 활용되고 있는 『민중권력』(*Poder Popular*)에 게재됐다.

3월 18일, 플로레스 란사를 위해 멜이 조직한 환영식에서 멜은 사면이 ‘범죄시’ 되었지만, 쿠데타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7천 명이 그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면은 우리나라에서 작동하지 않은 정의를 위해,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사면은 청부 살인자와 같았던 사법부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했던 수많은 남성들과 여성들에게도 마침내 정의가 구현되게 할 것입니다.”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플로리스 란사와 같은 진정한 수혜자들은 복수를 갈망하며 복귀했다. 공동 항의를 통해 그는 여러 전직 관료들과 함께 온두라스 국가를 쿠데타 행위로 고소했다. 고소건은 2021년 8월 미주인권위원회(CIDH)에 접수됐다.³⁾ 조사가

3) Informe No 382/21 Petición 100-10 Informe de Admisibilidad José Manuel Zelaya Rosales y otros, Honduras, <www.oas.org/es/cidh/decisiones/2021/hoad100-10es.pdf>.

진행되면 판결은 미주인권위원회 관할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로부터 빼앗은 것을 돌려주기를 갈망한다. 그들은 거짓말로 네 번째 투표함을 범죄로 몰아갔다. 따라서 이에 대해 우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라고 란사는 언급했다.

란사는 다섯 차례 석방 서한을 받았고, 3월 4일 마지막 서한을 받았다. 이를 통해 그는 공문서 위조 관련 범죄와 권력 남용과 공공행정에 위해가 되는 사기죄와 관련된 세 건의 범죄에 대한 혐의에서 벗어났다. 자신의 벗을 환영하는 자리에서 셀라야는 마치 일화를 들려주듯 조롱조로 그들이 자신에게도 부패 혐의를 씌우려고 했다고 언급하며, “대통령실에서 사용한 연료조차도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식사 대접을 한다는 이유로 나를 조사하려 들지도 모르겠네요.”라고 말했다.

농장으로의 귀환

4월 23일, 멜 셀라야는 헬기를 타고 엘 아구아카테 활주로에 착륙했다. 이곳은 온두라스에서 가장 큰 행정구역 중 하나로 토지 규모만으로는 엘살바도르를 능가하는 올란초 주의 카타카마스에 위치한 엘 에스피노 공동체에 있는 그의 소유지에서 몇 구역 거리다. 올란초 주는 그라시아스 아 디오스 주와 콜론 주에 인접하고 있기도 한데, 이 두 지역 모두 마약밀매와 조방 목축의 경로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업 지역이다. 거대한 대지에는 산, 밀림, 소규모 거주민들의 정착지, 다양한 보호구역들이 위치하며, 모두 마약밀매와 정부의 방치로 인한 갈등에 시달려왔다.

여행의 동기는 극도로 민감한 협상이었다. 그 아내의 정부는 천연자원 환경청(MiAmbiente) 청장인 렉키 메디나를 통해 3월 말 불법 도로 철거를 약속한 바

있었다. 이 도로는 리오 플라타노 생물권 보호구역(Reserva de Biosfera de Río Plátano,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됨)을 관통하는데, 목장주들과 원주민들에게는 그라시아스 아 디오스에서 올란초로 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통로로 활용되었다. 지역민들은 이 도로가 마약밀매업자들을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으며, 사실상 현재는 ‘마약도로’라고 불린다고 증언한다. 도로 완공 시점은 후안 올란도 에르난데스 집권 마지막 해인 2021년으로 과도한 환경파괴 우려로 논란을 일으켰다. 그렇지만 도로 건설 사업이 개시된 년도는 멜 셀라야가 집권하고 있던 2007년이다.⁴⁾

올란초에서 성년 민심을 달랠 사람은 멜만한 책임자가 없다. 그는 거의 귀족에 버금갈 정도로 존경받는 가문 출신으로, 마을의 유지들 중 한 명이다. 엘 에스피노에서 농업대학(Universidad Agrícola) 방향으로 개통된 도로에 여러 부지들이 셀라야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2016년 셀라야 부부는 사위이자 변호사인 후안 카를로스 멜라라에게 이 일대 13,454.13 평방미터 규모의 땅을 증여했다. 멜라라는 그들 장녀이자 마찬가지로 변호사인 소에 셀라야의 남편으로, 그녀는 셀라야 부부 자녀 중 유일하게 공직을 맡고 있지 않다. ‘시민권력’ 시대 멜라야는 셀라야를 보조했지만, 2007년 연고주의 의혹이 불거지자 멜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그를 해고했다.⁵⁾

대통령 재임 시절, 셀라야는 엘 에스피노에 소유한 지분 일부를 텔레톤(Teletón)에 기부했고, 농업대학에 야간수업을 위한 건물을 세웠다. 이후 국민당 출신 전 대통령 포르피리오 로보 소사도 유사한 건물을 세웠다. 두 건물들은 모두 올란초의 두 지주들을, 그리고 그들 각자의 정치적 전통을 상징하는 의미로 세워졌다.

4) “Descubren misteriosa carretera en la Biosfera de Río Plátano”, en *Proceso Digital*, 28/9/2007.

5) “Mel Zelaya despide a su hermano y a su yerno”, en *La Prensa*, 28/1/2007.

환경부장관의 약속이 있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셀라야는 모스키티아 목장주들과 합의를 이끌어냈다. 서명된 합의서에 따르면, 도로 철거를 하지 않는 대신 이 일대 목장주들은 조방형 목축을 중단하기로 약속했다. 며칠 후 미스키토 지도자들은 정부가 자신들의 입장도 고려할 것을 요구하며 테구시갈파에 도착했다. “미스키토 사람들을 그만 좀 괴롭혀라”며 미스키토 조직인 마스타(Masta) 소속 올란도 칼데론은 항의했다. “도로의 목적은 강 건너 마약밀매 목장주들의 농장들이 대부분 자리하고 있는 와룬타(Warunta)로 가기 위해서다. 이제 군대도 침략자 대열에 합류하여 조금이라도 땅을 차지하려 안달이고, 조직의 한 패가 되어가는 이상, 이제 그곳에는 아무런 통제도 없다.”

“도로가 철거될 것이며, 보호를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이고, 또한 군대가 침략을 막을 것이라고 장관이 말했다 때 우리는 기뻐다. 하지만 뒤이어 목장주들과 만난 자리에서 뿔이 도로 철거를 막고, 그들이 근무지로 출입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졌다. 목장주들 대부분은 올란초 사람들이고, 그들 다수는 정치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의 대리인들이다”라고 칼데론은 비난한다. 그의 말이 맞다. 올란초 주도인 후티칼파의 문화원에는 백발의 남자가 있는데, 그는 이 도시뿐만 아니라 셀라야 가문의 역사에 대해서 정통하다고 내세우는 인물이다. 그의 이름은 다리오 에우세다 로케로, 작가이자 전직 대통령의 동창이고, 대통령궁 연설문 작성에 참여하기도 했다. 에우세다 로케는 셀라야의 선조가 정복 이전 시대로까지 거슬러 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셀라야 가문 최초의 조상은 산티아고, 미겔, 조셉 형제로, 그들은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와 함께 스페인에서 멕시코로 왔다. 멕시코에는 셀라야 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들이 이 도시를 설립하고, 칼로 정복했다. 도시에는 단지 c자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다. 이 작가에 따르면, 셀라야 가문이 올란초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후티칼파의 레파구아레 계곡을 무척 마음에 들

어 했고, 그래서 스페인 국왕에게 그곳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그건 마치 그의 정복 사업에 대한 포상과 같았고, 왕은 그곳에 대한 사적 권리를 승인했다. 레파구아레 계곡은 여전히 그들 가문의 소유이다. 1536년 스페인 국왕의 서명이 담긴 권리증이 하사되었다. 변호사로서 나는 이 권리가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올란초의 셀라야 가문은 한 번도 영향력이 없었던 적이 없다. 18세기 올란초는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크고, 가장 방대한 목축 지대였다. 에우세다에 따르면 셀라야 가문은 항상 주지사였고, 시장이었으며, 군사령관이었다. “이제 이 상황을 두 대통령들을 통해 목격하고 있다. 아내인 시오마라와 멜을 통해서 말이다.”

하지만 올란초 사람들 모두가 셀라야와 로보 같은 이들을 칭송하는 것은 아니다. ‘쥐를 쫓아내자’라는 슬로건의 무소속운동을 통해 카타카마스 시장직에 도전했던 세르히오 안토니오 캄포스는 셀라야 가문이 “신격화되었다. 쿠데타가 발생하기 전, 여기저기에서 네 번째 투표함 사업 명목으로 돈을 뿌려댔던 사실을 떠올려봐라, 지금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때 받은 돈 때문이라는 게 나의 생각이다.”라고 비판했다.

일반적으로 모든 걸 가진 사람은 자신이 축적한 것을 지키기 위해 왕국을 건설한다. 셀라야 가문에서 멜의 정치적 성공과 그 가족들의 전면적 정계 진출은 카타카마스 최초의 호세 마누엘 셀라야, 즉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가했던 압박으로 거슬러간다. 멜의 부친인 호세 마누엘 셀라야와 모친인 오르텐시아 로살레스는 네 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장남인 전직 대통령 멜에 이어 둘째 카를로스(국회 사무총장), 셋째 엑토르(청년기 암살당함) 그리고 막내 마르코다. 마르코는 자유재건당 전직 대통령 카를로스 로베르토 레이나(1994년~1999년 재임)의 딸들 중 한 명과 결혼했다. 셀라야 로사셀스의 부친은 일부 군인들과 함께 ‘오르코네스(Los Horcones)’라고 불리는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온두라스 역사에서 가장 잔혹했던 농민 학살 중 하나다. 그는 비록 이로 인해 1970년대에 수감됐지만, 이후 사면을 받고 석방되었다.

외교부 차관인 헤라르도 토레스에 따르면, 오르코네스는 “그들에게 항상 부담이 되어 왔고, 셀라야 대통령에게는 특히 그랬다.” 그럼에도 토레스는 멜 셀라야와 그의 부친의 행위를 구분하며, 당시 “그는 올란초 아구아카테에 주둔한 니카라과 콘트라스 비밀 기지를 비난했다.”⁶⁾라는 이유를 제시한다. 멜은 자신이 청소년기를 보내기도 했던 그 도시의 카스타노 지구에 있는 다양한 구역들과 후티칼파에 있는 오르코네스 부지를 여전히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멜 셀라야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시기는 1980년대로 거슬러간다. 이 당시 자유재건당의 지도자는 “불명에 퇴진했고”, 그 자리는 공석인 상태였다. 그 때 당시 국회 사무총장이자 셀라야 가문의 가까운 친척이었던 인물이 멜의 부친에게 제안을 했다. 다리오 에우세다를 인용하자면, “멜, 정치적 공석이 생겼다는 데 주목하세요, 아들 멜을 그 자리에 세우세요.” 멜의 부친은 “좋습니다. 그 자리에 세워야겠어요,”라고 답했을 것이다. 하지만 멜 셀라야가 전국 수준의 정치적 자리까지 오르기 위해서는 뒷배가 필요했고, 멜의 부친은 자유재건당 출신의 당시 대통령 호세 시몬 아스코나(1986~1990)의 선거 승리를 가져온 운동의 이념성향을 고려해, 멜의 후원자로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카를로스 오르빈 몬토야를 즉각 선택했다. 멜은 이 오래된 충신들을 잊지 않았다. 2006년 오르빈 몬토야가 중미경제통합은행(BCIE) 온두라스 대표로 지명되고, 이후 온두라스중앙은행(BCH) 총재로 지명됨에 따라 지난날의 호의는 보상받았다. 쿠데타가 있기 전에 오르빈 몬토야는 ‘네 번째 투표함’ 사업을 조직한 인물들 중 하나였다. 2022년에도 그는 잊히지 않았고, 시오마라 카스트로는 그를 국영회사 온두텔의

6) 콘트라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 산디니스타 혁명을 진압하던 무장세력이었다.

경영진에 임명했다.

멜, 책략가

다리오 에우세다는 정치인으로서 멜 셀라야의 주된 특징으로 영악함을 드는데, “책략을 잘 쓰고, 무엇이든 탐색한다.”고 설명한다. 국회에서 장악력을 확보하려고 소란을 피웠던 자유재건당 내 반대파 의원들을 대상으로 셀라야가 제안한 협약을 보고 에우세다는 그의 이런 책략을 감지했다. 멜은 자유재건당을 통제하고, 당규는 그가 법적 대표뿐만 아니라 총 지도자 직무를 수행하고, 더 나아가 전국조직위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전국협의회에 관여하는 것도 허용한다. 전국조직위나 전국협의회에서 내리는 결정은 모두 전 대통령인 셀라야의 손을 거쳐야 한다. 2012년 정당 등록 이래로 자유재건당은 단 한 명의 법적 대표와 최고지도자를 배출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적어도 2025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엘살바도르 부켈레 가문처럼 셀라야 가문 역시 정당 창당의 주역으로서 당 내 핵심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멜의 곁을 대통령, 그의 남동생들, 조카, 국방부장관, 그리고 정부 요직을 맡고 있는 기타 인물들이 지키고 있다. 대표적으로 산 페드로술라 전직 시장 로돌포 파디아 순세리(부패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네 차례의 석방서한의 수혜자가 되었다.), 현 재정부장관 릭시 몬카다, 당시 노동조합원이었다가 이제 의원직 신분이 된 후안 바라오나, 농민지도자이자 전국농업연구소 부소장 라파엘 알레그리아, 온두라스 육상운송연구소 소장 라파엘 에드가르도 바라오나, 국회의원으로 현재는 멜 셀라야와 소원해진 베아트리스 바예를 들 수 있다.

2012년 정당 창립 과정에서 멜이 주창했던 운동으로 현재도 자유재건당에 소속돼 활동하는 M28의 명실상부한 두 지도자인 바예와 호르헤 칼릭스는 최근

총선에서 온두라스 사상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의원들이 되었다. 하지만 국회에서 최고위원회 선거로 인해 발생한 위기로 그들은 지도자에서 소위 ‘변절자’로 비난받게 되었다.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시오마라 카스트로의 역사적 승리, 그리고 총선에서 자유재건당이 달성한 압도적 득표가 정당의 화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현재 바예는 이미 시효가 다한 관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적 권력 구도 재편에 자신이 둘러싸이게 되었다는 생각을 표명해왔다. 단편적 예로, 바예는 자신이 의원직에 출마했을 때부터 셀라야와의 관계가 틀어졌다고 주장한다. “저는 멜이 제게 거의 말을 걸지 않는다는 사실을 눈치 챘습니다. 저와는 거의 말을 섞지 않았죠, 저는 말했어요, 너무 이상한 일이라고, 하지만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세요, 23년이예요, 내가 어떻게 멜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 저는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온두라스에서는 일반적으로 의회 지도자들이 향후 대선을 위한 선거철 이동메뉴판 역할을 한다. 아니면 적어도 의회에서 핵심적인 지도력을 행사할 위치를 차지한다. 칼릭스와 바예는 선거에서의 승리에 힘입어 이 경로를 밟는 듯 했지만, 이내 해묵은 반목과 사전 조율된 약조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처럼 칼릭스가 바예와 그 밖의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의회에서 왕좌를 차지하려 할 때, 대통령 당선인은 이와는 다른 노선을 요구했고, 후보 시절 도움을 받았던 온두라스 살바도르당(Partido Salvador de Honduras)과 맺었던 합의를 지키려 했다. 이 합의에 따르면 혁신과 사회민주통합당(PINU-SD) 의원인 루이스 레돈도가 의장직에 지명될 예정이었는데, 이후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대통령 궁에서 멜 셀라야와 호르헤 칼릭스가 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합의는 수정 없이 유지되게 되었다.

자유재건당에 균열이 생긴 지 백 일 이상이 경과한 무렵, 셀라야 가문은 더 강해져 있었다. 카를로스 셀라야는 국회 사무총장으로 지명되었는데, 이 자리는

의회의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위치이자 사실상 실제 입법부의 의장 대행과 같은 역할이다. 자유재건당의 입법대표로는 라파엘 사르미엔토가 지명됐는데, 그 역시 대통령의 직계 가족이다.

온두라스에서는 시간이 지나치게 빠르게 흐른다. 카타카마스에서, 그리고 국회와 대통령궁에서 누군가는 셀라야 가문의 다음 행보를 예측하기 위해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시오마라를 잇는 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가문 내 누군가에게 힘을 실어주는 행위가 수반된다. 정부 홍보실의 실질적 수장인 다사 에브 아길라르는 지난 5월 9일 시오마라의 아들이자 개인 비서인 엑토르 셀라야의 사진을 배포했다.⁷⁾ 아길라르는 “온두라스의 차기 대통령과 함께” 있는 모습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발언에 대해 질문을 받자 다음 선거에서 있을 일이라고 말한 것은 아니었다고 답변하여 얼버무리려 했다. 분명한 사실은 셀라야 가문의 힘을 축적해왔고, 2009년 6월에 발생했던 일이 반복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Cofadeh의 베르타 올리바는 자신은 역사가 반복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쿠데타라는 말도 다시 입에 담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그녀는 쿠데타가 일어나게 한 구조는 여전히 온전히 남아있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을 그만두게 하고, 되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전 세계에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들은 누구인가? 바로 미국이다”라고 그는 말한다. 이어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실권세력들이 지금 의도하는 바는 시오마라 정부가 허약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들은 사면을 비난하며, 초창기에는 국회를 끌어들이어 정부를 약화시키려했다. 셀라야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고 힘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는 점이 문제라면, 정말로

7) Rony Martínez: “Con el próximo presidente...”, tuit, 10/5/2022, disponible en <<https://twitter.com/ronymartinezhn/status/1523855693790564352>>.

그가 권력자이고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면, 그렇다 해도 무엇이 문제인가? 이 사람(후안 올란도 에르난데스)이 독재정권을 구축하고, 형제를 국회에 보내고, 남매를 장관으로 임명하고, 또 다른 형제를 치안고문으로 고용하는 등 정부 곳곳에 온 가족을 두었어도 당시에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쿠테타를 일으킨 지 12년이 지나 로메오 바스케스 장군은 이제는 거대한 집의 크기에 비하면 작디작은 의자에 앉아, 자신에게 그토록 큰 두려움을 안겼던, 그리하여 나라를 “베네수엘라 같은 체제”로 만들려는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차라리 헌법 위반을 선택하게 했던 자들이 지휘하는 온두라스를 분석한다. “2009년 발생한 사태 때문에, 그들은 돌아와 다시 경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그 사람들은 행복해야 할 것이다.”라고 그는 말한다.

바스케스는 대통령이 다른 역사를 만들 수 있다는 의견이다. “그녀가 입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민이 아름답고, 민주적이며, 공명한 행위로서 그녀에게 투표했기 때문이다.” 비록 첫 행보에는 만족하지 않지만, 그는 갓 발걸음을 떼는 정부에게 여유를 주어야 한다고 믿는다.

강정원 옮김